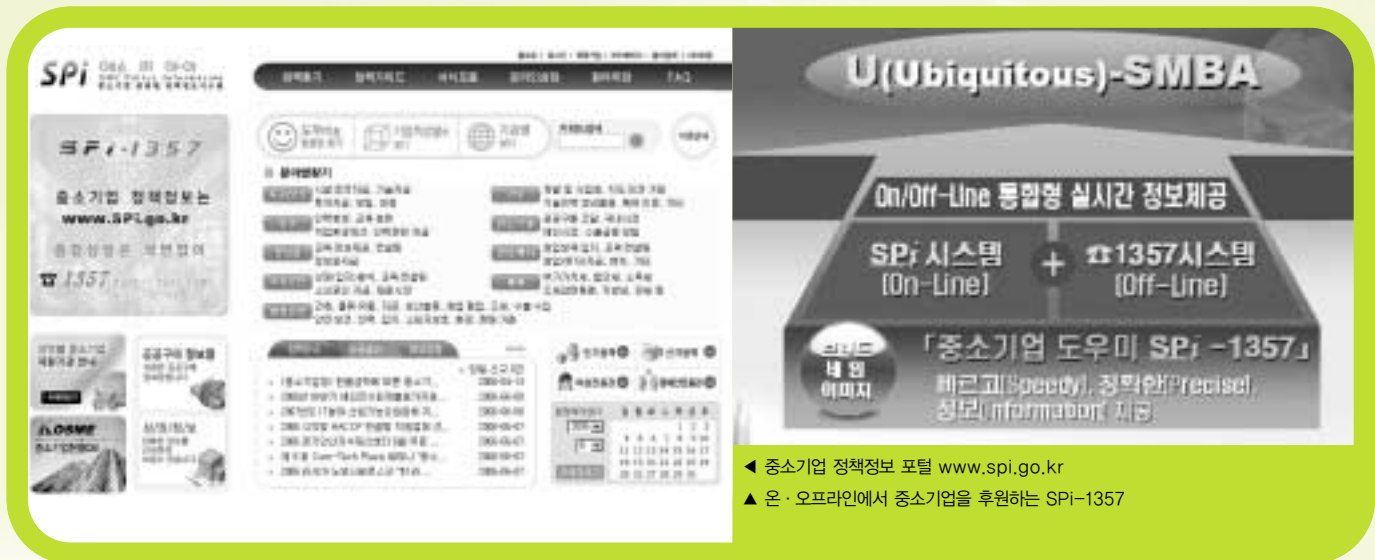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 본격 가동

온·오프라인 간 효율적 연계로 U-중소기업청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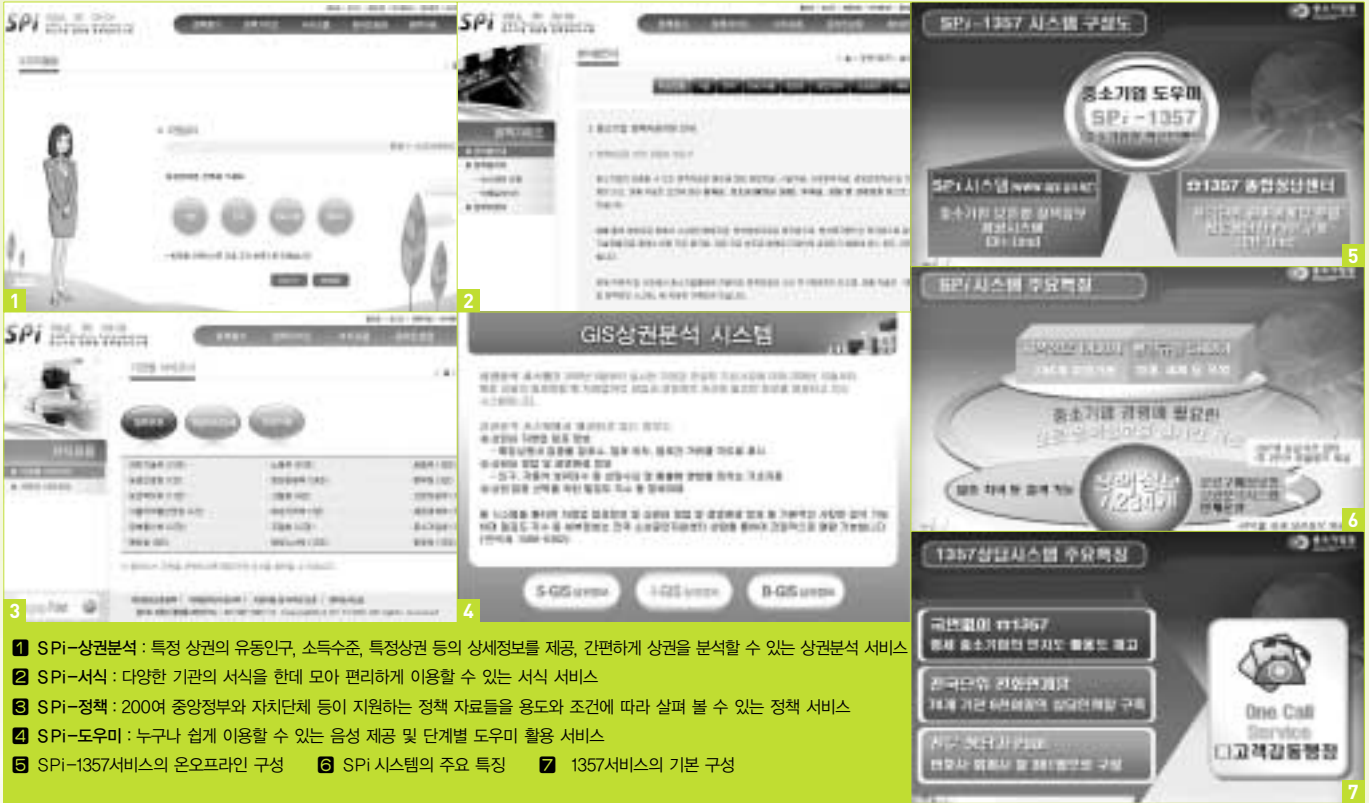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앞의 Spi는 온라인(www.spi.go.kr)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의미하며, 숫자 1357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각종 중기 정책 및 관련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보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해 온 이용자 혼란 및 불편 사항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구축된 SPI-1357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중소기업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지원 정보를 습득·활용하고 애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Ubiquitous) 맞춤형 정책정보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spi.go.kr에서

SPi는 빠르고(Speedy), 정확한(Precise),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기 위해 200여 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자금, 인력, 기술 등에 대한 7234개 정책정보를 망라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청은 SPi를 통해 방대한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하나의 포털로 구축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정책정보전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실사용자도 이전처럼 각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방문하는 대신 SPi에 접속하여 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정보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SPi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중소기업정책 서비스와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전반적인 중기지원 정책 가이드와 함께 업종·지역·분야·기관별로 정책 검색이 가능하게 했다. 검색에 있어서도 음성지원 및 애니메이션 사용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였다. 또한 기관별로 상이한 서식을 모아 사용자의 번거러움을 줄였고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 한전 등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구매정보를 한곳에 모은 공공구매 정보망과, 예비 창업자



- 1 SPI-상권분석 : 특정 상권의 유동인구, 소득수준, 특정상권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 간편하게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상권분석 서비스
- 2 SPI-서식 : 다양한 기관의 서식을 한데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식 서비스
- 3 SPI-정책 : 200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정책 자료들을 용도와 조건에 따라 살펴 볼 수 있는 정책 서비스
- 4 SPI-도우미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성 제공 및 단계별 도우미 활용 서비스
- 5 SPI-1357서비스의 오픈프라인 구성 6 SPI 시스템의 주요 특징 7 1357서비스의 기본 구성

와 소상공인들의 전업 시 참고할 수 있는 업종별 상권정보를 망라한 상권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명실공히 중소기업 정책정보의 포털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기청은 기존에 유료로 제공되던 상권정보시스템의 고급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을 보강하여 실패확률이 높은 창업을 줄이고, 관련 기관의 컨설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업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합상담은 국번 없이 1357로

1357은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만 누르면 법률과 회계,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들 중에 아직 상당수의 기업이 정보화 여건이 미비하거나 고령인 중소기업인의 경우 인터넷 저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더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일반전화(60.7%) 등 오프라인 수단이 이메일(24.5%) 등 온라인 수단을 압도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다양한 정책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상의 '중소기업 종합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좀더 알기 쉽고 기억하기 편리하도록 지난 1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만 누르면 시내전화 요금으로 '중소기업 종합상담센터'의 친절한 상담원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357 상담 전화는 신용보증·기술보증·기술정보원 등 6천 7백여 명과 4백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 상담 풀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상담 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만 고객에 대한 콜백(call back)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담평가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